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국민과 함께 한 100일, 이게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호남 인재 등용, 5·18헌정사적 가치 인정

지역 현안사업 100대 국정과제 대거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탈권위' 행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특히 촛불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과 인사탕평의 국민 통합 행보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70%를 웃도는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 소통과 섬김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광주·전남 지역민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홀대와 상처를 받은 5월 영령과 광주시민을 위로하고 감사 안았다. 기념식장 입장부터 경호 등의 이유로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일반 시민들과 함께 도보로 입장했다. 기념식에서는 또 한번의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다.

유족 추모사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아버지를 잃은 김소형씨가 '슬픈생일' 추모사 낭독 후 눈물을 흘리면서 연단을 내려와 퇴장하자 문 대통령이 소형씨를 뒤따라가 위로의 포옹을 건넸다. 기념식 후 소형씨의 묘소를 함께 참배까지 한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세월호 유가족과 4.19혁명, 제주 4.3항쟁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적극적으로 꺼안은 것도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경내 또는 외부 일정을 떠나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고, 이는 비단 사회적 약자 뿐 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 기업 총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탈권위, 소시민적 행보는 50년 만의 '청와대 앞길 개방'

도 가능케 했다.

◇ 인사탕평, 호남 인재 중용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홀대받았던 '호남 인사' 중용을 통한 탕평인사를 단행했다.

취임 후 정부 요직에 호남 인재를 임명해 후보 시절 "다시는 호남 인사 차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켰다.

우선 영광 출신의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초대 호남총리로 기용된 것이 상징적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광주·전남 출신이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등에 호남라인이 동시에 기용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 18부 4처 17청의 차관급 이상 인사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11명(15.7%), 전북 출신은 10명(14.3%)으로 호남 출신이 30.0%를 차지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호남인사 등용을 막는 등 '호남 홀대'에 앞장섰다는 말을 가장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잇따른 호남 인재등용은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문 대통령은 그동안 폄훼와 왜곡이 끊이지 않았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추진과 5·18 진상규명 등 역사 바로 세우기도 다시 한번 약속했다.

또 에너지밸리,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트 구축 사업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를 포함한 KTX2단계 사업 추진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사업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지역민들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대의 지지율로 응답했다. 지난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전북 64.8%·광주 61.1%·전남 59.9%)을 보였던 호남이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의 가장 확실한 지지세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발행인 칼럼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
(담양·함평·영광·장성)

한국 정치와 호남의 미래

좌우의 날개로 새가 나는 것처럼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할 때 발전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극단의 이념 대결에 치우쳐 왔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문화와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독식, 부의 편중과 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왔다. 한국의 정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진보는 경제와 사회체제를 크게 바꾸자는 변화에 큰 가치를 둔다. 반면 보수는 경제, 사회체제를 조금씩 바꾸거나 현상유지에 가치를 둔다. 진보주의 정치 이념과 경제 목표가 민주주의와 분배를 우선시한다면 보수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진보가 정책수단으로 경제 민주화와 같은 동반성장 정책을 중점을 두는데 비해 보수는 대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 또는 잉여효과(spill-over)를 중요시 여긴다. 진보가 약자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해 보수는 규제 혁파에 방점을 뒀. 약육강식의 논리에 보다 충실하다.

진보와 보수를 규정할 때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보여준 변화는 진보가 분열하면 보수가 승리한다는 신화를 깨트렸다. 수적 우세의 영남과 5060 세대가 지지하는 보수가 항상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됐다. 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등식도 깨졌다. 이제 한국

유권자의 정치성향은 더욱 진보화하고 안보성향은 더욱 보수화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권자 의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문화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이념논쟁을 촉발시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보수정당의 행태다.

다행스럽게도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극한 이념대결에 치우친 한국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호남의 정치적 위상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민주계 후보에 몰표를 주던 지역민심은 19대 대선에서 분열된 양상을 보였다. 인구 수에서도 호남(2016년 기준 524만)은 충청(539만)에 역전됐다. 자칫 호남의 정치적 발언권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

호남이 다시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 정치 엘리트 교체와 과감한 인물 키우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호남의 3선 이상 대선 국회의원 비율은 39.3%로 부산·경남(38.2%)과 대구·경북(36.0%)보다 오히려 높다.

그럼에도 호남에서 대권주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호남의 정치엘리트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과감한 인물 키우기를 통해 '호남 대망론'을 일으키고 '김대중 정신'과 5.18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로는 호남을 찬양하면서 속으론 호남정치를 분열시킨 세력이다. 이들을 지지해선 안된다. 호남의 권리는 호남이 지켜내야 한다.

도당, 19대 대선 승리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

16일 영암·무안·신안 52명, 순천 56명 표창장 수여 이달 말까지 각 지역위별 표창장 수여식 개최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19대 대선 승리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을 갖고 52명의 영암·무안·신안지역 공로 당원에 대해 1, 2급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

이날 수여식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서삼석 무안·영암·신안지역위원장, 표창장 당원 및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당은 무안·영암·신안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순천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한데 이어 21일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갖는 등 전남 10개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다.

영암·무안·신안의 당 대표 1급 표창장은 이명숙씨(여·무안) 등 10명이, 도당 위원장 2급 표창장은 김연일·우승희 도의원(영암), 이경운 영암·무안·신안지역위 전 사무국장 등 42명이 각각 받았다.

이개호 위원장은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제3기 민주정부 수립에 큰 기여를 했으며, 승리의 밑바탕에는 오늘 표창을 받으신 당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며 표창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도당은 이어 이날 오후 순천 팔마체육관 교육실에서 순천지역 당원 56명에 대해서도 대선 승리 공로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순천



에서는 유영철 순천시의원 등 10명이 당 대표 1급 표창을, 남진우 지역위 사무국장 등 46명이 도당 위원장 2급 표창을 각각 받았다.

한편 전남지역 제19대 대선 공로 당원 표창자는 1급 표창 120명, 2급 표창 453명 등 총 573명이다.

“천일염 정부 구매제 및 식품첨가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시급”

천일염 산업 활성화 토론회 이동수 생산자 대표 주장



이동수 생산자 대표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일염의 정부 구매제 도입,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의 시설 전환을 위한 폐염전 규제 완화, 식품첨가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요지 4면>

이동수 복신안 천일염생산자 공동대표는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관으로 무안 남악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천일염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수 대표는 토론회에서 현재 20kg 당



약 2천200 원 선까지 급락한 국산 천일염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대한염업조합의 천일염 출하 규제 ▲20kg 포대 사용 정책 폐기 ▲수입염 및 기계염의 천일염 둔갑 단속 미비 ▲폭염으로 인한 과다 생산 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천일염 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 구매제 도입 등 쌀과 동일한 수급 대책 실시,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등 천일염 소비자 다변화, 가격 하락에 일조한 30kg 포대 사용 제한 및 20kg 포대로의 표준화 정책 실시 등을 요청했다.

또 식품 첨가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를 통해 고추장, 된장, 절임배추, 잣갈류 등 소금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들이 국산 천일염과 수입염, 또는 기계염을 사용하는 지의 정보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첨가물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국산 갯벌 천일염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의 천일염 산업 지원정책도 천일염 생산자 보다는 타일, 장판, 시설, 기계사업자들에 편중돼 염전시설에 대한 업주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환경이 오히려 악화돼 고용안정 및 가격보조, 비축창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흥빈 도의원(신안)의 사회로 조지훈 박사(부동산학)의 '천일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해수부 권미연 천일염 담당관, 하두식 전남도 수산물유통가공과장, 박운기 신안군 특산물유통사업소장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신안 섬주민들 청와대 방문

신안군 자은·암태·안좌·팔금면 섬 주민 70여명이 지난달 20일 김정숙 여사 초청

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번 청와대 방문은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때 신안 낙도지역을 방문, "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꼭 한번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시됐다.

다문화 가정이 포함된 섬 주민과 우리 당 무안·신안·영암 지역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날 신안지역 해상에 안개가 끼어 예정시간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2시 30분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오히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위로와 배려를 아끼지 않아 재회한 주민들을 감동시켰다.

김 여사는 한복차림으로 섬주민들을 맞이했고 참석자 모두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반갑게 맞았다. 주민들을 청와대에서 마련한 떡과 과일, 샌드위치, 주스 등을 대접받았다. 주민들은 대부분 처음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김 여사의 따뜻한 환대에 긴 여정의 피로를 잊고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고 참석자들

은 전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섬 주민들이 나오실 때는 하룻밤을 자고 나오시거나 오늘 처럼 안개가 끼면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되는데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 3면으로 이어짐

더불어 광장 2017. 08. 24 (제19호)

발행인 | 이개호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전남도당, 대선 이후 신규 권리당원 및 복당자 급증

신규 입·복당자 올 해만 2만여 명, 당원수 39만여 명 달해
도당, 지난 달 101명 복당 의결...올 해 255명 복당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0%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힘입어 권리당원 신규 입당 및 복당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 집계 결과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8월 현재까지 신규 입당자와 복당자 수는 2만여 명, 전체 당원수는 3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일반 당원 중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당비 약정을 한 당원을 포함한 신규 권리당원 입당자는 2만여 명, 전체 권리당원은 4만 명을 돌파했다.

복당원서 제출자도 크게 늘었다. 도당은 지난 달 14일 제19차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신청자 나경상씨(46·목포) 등 101명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도당 당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

근 복당계를 제출한 총 104명의 탈당자 가운데 나씨 등 101명에 대해 복당을 의결하고 3명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탈당 후 다시 복당계를 제출해 복당심사를 통과한 복당 당원 수는 전남에서만 모두 255명에 이르고 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90%대로 압도적으로 높고 대선 제보 조작 사건 등 추문으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신규 입당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총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나 국민의당 쪽에 있던 인사들이 대거 복당 신청을 하고 있어 연말까지 입·복당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이 기세를 유지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영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영광지역 하계 당원단체대회에서 이개호 의원(지역위원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등 당원들이 화합을 다지는 친목행사를 갖고 있다.

도당, 제22차 운영위 개최...6월 8일

제19대 대선 공로자 포상, 복당 심사결과 등 의결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 6월 8일 남양도당 회의실에서 제2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부 승인의 건(목포), 제19대 대선 공로자 포상(2급) 의결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의장을 맡은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춘용 노인위원장과 문행주(화순)·우승희 도의원(영암), 박

금례 진도 군의원 이재한 도당 장애인위원장 등 도당 운영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도당 운영위는 이어 당원자격심사위(당자위)의 복당심사 결과 심의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당은 19대 대선승리에 따라 각 지역위원회별로 40명씩 총 400여 명의 대선승리 유공 당원들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2면에 이어

이에 대해 서삼석 지역위원장은 감사의 말을 통해 “시골 어르신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실행에 옮겨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리며, 여사님께서 교통편을 걱정해 주셨듯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주민들을 위해 신안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석(65) 자은면 장고리 이장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데 대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친환경지역인 우리 지역이 관광벨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혜연(42) 신안군다문화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도서지역과 저희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후 15~20명씩 김 여사와 단체사진을 찍었다.

www.nfagro.co.kr

살아있는 "자연", 숨 쉬는 "미래"

- 검증받은(품질인증, 목록공시) 제품으로 농업인의 신뢰구축!
-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선도기업!
- 공인받은 기업부설 "생물자원연구소"의 연구개발(R&D) 능력!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에서 품질인증까지,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친환경유기농업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해남 메뚜기떼(풀무치) 습격!

친환경 유기농 약제

싸그리 + 멸충대장골드

를 사용해 **완전퇴치!**

(주)자연과미래가 해냈습니다.

먹거리에 **활학**을 담는 사람들

(주)자연과미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무옥로 359
대표전화 061)363-8488

지상중계

천일염 활성화 정책토론회 요지



▣ 조지훈(부동산학 박사)

▣ 이동수(북신안천일염생산자 공동대표)

▣ 하두식(전남도 수산물유통가공과장)

천일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천일염 생산 최적지 중심으로

세계 5대 천일염은 우리나라의 서남해안과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다. 세계 5대 천일염전은 모두 갯벌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남을 비롯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허가면적과 가동면적은 각각 4천676ha와 3천687ha에 이르고 있다. 또 허가업체와 생산업체 수는 각각 1천295개, 1천11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남의 허가면적과 가동면적(2010년 기준)은 3천357ha와 3천7ha이며, 허가업체와 생산업체는 1천161개, 1천028개에 달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한민국 천일염전 최적지는 지리정보시스템과 회귀분석에 의한 기후 및 지형조건, 토질특성, 해수염도 등의 환경요인 평가 결과 비금·도초를 비롯한 신안군의 도서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 천일염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 측면에서 고품질 천일염 제조를 위한 생산시기 조정, 국내 생산량에 따른 수입소금 수급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권역별 교육기관 설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천일염학과 설립과 생산 이력제 및 인증제도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

가공 측면에서는 △명품 천일염 상품화를 위해 색채선별기, 열처리시설 등의 가공시설 지원 △제품의 규격화 등급화 △국산 천일염의 원산지 표시 및 수입염과 공업용 소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유통 측면에서는 △생산자 스토리 디자인 작업 지원 △미네랄 천일염의 우수성 적극 홍보 △개별 생산자 택배비 특별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천일염 생산자 생존권 보장대책

하늘이 내려준 국산 천일염의 가격 폭락으로 천일염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천일염 생산자들은 위기에 빠진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 천일염 가격 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급락한 천일염은 현재 20kg 당 약 2천2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격 하락의 원인은 출하 규제를 통한 수급조절의 실패와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20kg 포대 규격화 정책 폐기, 수입염·기계염의 국산 천일염 둔갑 단속 미비 등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천일염 출하규제와 신안군의 중국수출 실패 등으로 천일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입염과 기계염에 판로를 빼앗기게 된 것이 주 원인이다.

생산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짚과 동일한 수급대책 마련 △수협을 통한 정부 구매 실시 △폐염전 정책 재실시 및 규제 완화 △20kg 사용정책 실시 △절임배추, 젓갈류 등 천일염 사용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요구한다.

둘째, 천일염의 수협 편입 및 위판 출하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식품이 아닌 광물로 취급되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서러움을 겪은 천일염에 대한 대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천일염 산업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에서보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천일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천일염에 대한 정부 보조사업이 생산자를 위한 것이 아닌 타일, 장판, 시설, 기계 보조사업에 중점이 되어 있어 생산자와는 무관한 현실이다. 천일염 가격보조, 비축창고 제공 등의 생산자 지원이 필요하다.

또 수입염 등의 천일염 둔갑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신안군의 천일염 판로 개척 정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다. 신안군은 2014년부터 3년 간 중국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자체구매 계획을 발표했으나 수출에 실패, 결국 천일염 출하를 미룬 생산자들만 손실을 보았다.

전남 천일염 산업 현황 및 자동화 사업 추진내역

전남의 지난해 천일염 생산량은 29만3,215톤으로 전국 생산량 32만3천4톤의 91%를 점유하고 있다. 천일염 생산금액은 전국 생산액 669억원의 90.7%인 607억원에 달한다.

생산면적은 전국 허가면적 4천504ha의 77%인 3천472ha, 가동업체 수는 전국 3,724개 업체의 76%인 2천832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는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총사업비 228억 원을 들여 모두 1천900대의 천일염 자동 채염기계 보급을 추진중이다. 기계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4개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고 7월 현재까지 341대를 보급했다. 자동 채염기계 설치 자비부담률은 40%이며, 국비 30%와 시군비 21%, 도비 9%의 비율로 장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 채염기계는 염전 작업환경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해 4ha 염전 기준 연간 500만~1천만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금 이송 및 포장공정 자동화를 위한 반자동 포장기계 보급사업도 추진 중이다. 반자동 포장기계는 소금 이송 레일과 디지털 저울을 사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소금을 운반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이다.

이 밖에 생산공정을 무인화·자동화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세한 염도변화를 관측하여 자동 급배수를 실시, 생산 품질 균일화를 도모하는 '스마트 염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억9천여만 원을 들여 65개 염전에서 스마트화 사업이 완료되면 천일염 생산량의 10% 향상 및 생산 자동화로 인한 안정적인 품질 확보가 기대된다.

순천지역위

김민석 ‘문재인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전략’ 특강

이개호 도당 위원장, 조충훈 시장 등 58명 19대 대선 공로당원 표창

순천지역위원회(위원장직대 조충훈·순천시장)는 지난 16일 순천 올림픽기념관 1층 교육실에서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을 초청, ‘문재인 정부 성공과 2018지방선거 승리전략’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제19대 대선 공로당원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해 김기태·서동욱·정병희 도의원,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주윤식 부의장, 김병권·나안수·문규준·박계수·박용운·서정진·이옥기·유혜숙·장숙희·정철균·최정원·허유인 시의원, 도당 오병현 사무처장과 도당 관계자, 지역위원회 남진우 사무국장과 당직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은 지난 5.9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7.81%를 몰아줘 득표율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지역이라 너



무 감격스럽다”며 “그 어떤 지역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너

하지는 않다”며 “그동안 적폐라고 했던 사람들을 뒤집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너무 오랜 적

폐가 자리 잡고 있기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다음 총선까지 승리해야 된다”며 “지방선거를 승리하려면 지금 하는 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발전하려면 당명을 바꾸지 않고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발전된다”며 “당이 가야할 길은 당원들이 진짜 주인이 되고 당원들이 공천도 하고 필요시 정책도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특강에 이어 열린 19대 대선 공로당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조충훈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주윤식 순천시부위원장, 서정진, 유영철 장숙희 시의원, 이종철 전 시의원, 강민수, 김경환, 문경환, 오광목, 정홍준 당원 등 12명에게 당 대표 1급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사·도의원과 지역위 당직자와 당원 등 46명에 대해 2급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 장성 진원 차돌복숭아 국회에서 판촉행사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앞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장성군 진원농협과 함께 ‘진원 차돌복숭아 시식 및 판촉행사’를 열었다. <사진>

이날 판촉행사에는 이개호 위원장과 국민

의당 김정진 국회의원(광주북구갑), 텔런트 사미자씨와 출향인사들이 찾아와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완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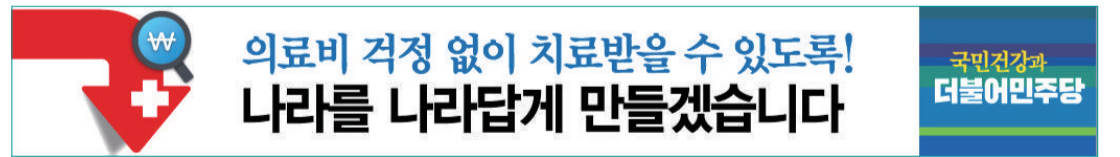
장성군 진원면 특산물인 차돌 복숭아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토양, 높은 일교차로 다른 지역 복숭아에 비해 맛과 당도가 좋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목포시의원 합동사무소 개소식

우리 당 목포시의회 최기동·최요한·최홍림·김휴환 의원은 지난 6월 12일 목포 하당지구에 합동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나가자고 다짐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현 목포지역위원장과 전남도당 오병현 전 사무처장, 이춘웅 노인위원장, 전경선 전 시의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당원 20여명이 참석해 합동민원실 개소를 축하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개최

상무위원 선출 및 상무위 권한 위임의 건 의결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위원장 신문식)는 지난 6월 30일(금) 오후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400여명의 당원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상무위원 선출 및 상무위 권한 위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해숙(서울광진갑),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과 박병중 고흥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추미애 대표와 이개호 도당 위원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3기 민주정부 출범 한 달,

당 지도부 광주서 민심경청 현장 최고위·한전 정책간담회

5·18정신 헌법화·한전공대 설립 등 강조

추미애 대표와 전해철·양향자 최고위원, 이개호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제3기 민주정부' 출범 한 달 째인 지난 6월 9일 '뒷밭' 광주·전남에 출출동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당에서

전문 수록,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육성 등 대선 공약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행 의지를 다졌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전국 확산을 약속했다.

전 최고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업벨리 구축, 광주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등 지역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최고위원)은 "문 대통령 당선으로 지역의 한과 응어리는 풀어지고, 자존심과 명예는 되살아났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속 대선 승리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되며 집권여당이 된 만큼 지역 공약의 차질 없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 대선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부탁한 뒤 "SOC(사회 간접 자본)가 약하지 않았다는 지역 내 평가도 있다"며 광주 내륙고속철과 경전철 등 SOC 관련 민원을 추가 건의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오후에는 나주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한전 본사를 방문, '에너지밸리 육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을 신산업 거점으로 키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광주·전남 청사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 것을 확인하고 싶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될 에너지밸리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며 한전공대 설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개호 도당위원장은 "에너지 밸리의 성공조건은 우수 인력의 공급에 있다"며 "광주과학기술원(GIST)이나 전남대 등 인근 대학과도 서로 특화하거나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난 7일 전북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방문, '민심경청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나주혁신도시의 한전에서 '에너지밸리 육성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린 최고위에서 "오랜 세월 차별과 소외, 푸대접 속에서 고통받았던 호남의 아픔을 보듬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철학으로 새로운 호남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에너지밸리 육성 성공의 열쇠가 될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하고 5·18정신 헌법

의 최적화 모델로 평가했다"며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촛불민심을 통한 정권교체로 5·18, 광주·호남 정신이 되살아났다"며 "5·18의 헌법 전문 수록, 자동차산

의 최적화 모델로 평가했다"며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당, '대선 조작 의혹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성명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 6월 27일 국민의당 '대선 조작 의혹사건'을 민주주의 파괴 및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당은 이날 '대선 조작 의혹사건, 배후는 누구인가?'란 성명을 통해 "저급한 어휘의

"민주주의 파괴 및 국기문란 행위, 배후 가려 일벌백계를"

향연과 거짓 뉴스를 통해 흑세무민하려던 대선 조작 의혹사건의 기획자가 일반 여성 당원이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했다고 발표한 이유미 당원은 '지시에 의해

조작했으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역울함을 피력했다"며 "국기문란 범죄를 30대의 청년당원과 청년 최고위원 단 두사람이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국민의당이 조작을 시인하면 서도 특검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선

공작의 배후를 숨기고 물 타기 하려는 후안무치한 작태"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강

'지방선거 필승전략' 등 2개월 간 10개 강좌 실시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달 14일(목) 2018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을 위해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도당은 이날 오전 100여명의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진데 이어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전남도의 현안과 대

책'이란 주제로 첫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오후에는 박해자 전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지역위원장)이 '지방의원의 역할과 준비할 점'에 대해 강의했다.

25일(화)에는 양향자 최고위원(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정창교 서울 관악구청 정책실장이 지방선거 필승전략에 대해 특강을 하는 등 9월 5일까지 2개월에 걸쳐 매주 화요일 두 강좌씩 운영된다.

이밖에 송영길 의원과 양국진 스피치 원장, 조충훈 순천시장, 이순이 해남군의원 등이 특강에 나선다.





순천 대선 승리 공로자 표창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지난 16일 순천지역위원회 19대 대선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을 갖고 조중훈 순천지역위원장 직대(순천시장)를 비롯한 공로당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를 대선 승리 공로자 표창 여수읍지역위(위원장직대 주철현·여수시장)는 21일 여수시보건소 회의실에서 19대 대선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을 갖고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2017 김대중평화캠프 지난 5일(토)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2017 김대중평화캠프' 에서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무안군 협의회장단 신규 위촉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박병석 사무국장, 김영 현경면 협의회장을 비롯한 무안군 읍면 협의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협의회장 위촉식을 가졌다.



목포 당원모집 캠페인 김중현 목포지역위원장과 최기동 목포시의원, 전경선 전 시의원, 이선자 목포여성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지난 12일 목포시내에서 당원모집 캠페인을 벌였다.



고흥·보성·장흥·강진 대선 승리 공로자 표창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21일 민주당 보성 광역·기초의원 합동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광주·전남 국정과제 설명회 개최...7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이개호 도당위원장, 단체장 등 500여명 참석

전남도당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당과 공동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광주·전남 국정과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공개된 국정과제 중 광주·전남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공약사업들을 별도로 간추려 소개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장인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 최영호 남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당원, 당직자 등을 500여명이 참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이어 광주·전남 국정과제 설명에 나선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광주~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조기 개통, 고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드론 종합 클러스터 구축 및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계획 등 전남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또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시설·콘텐츠 등을 종합 개선하고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양항 항만매립지를 에너지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 개발도 올해 착공된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발표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오는 2022년까지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 헬

기 인프라를 늘리고, 권역외상센터 구축을 완료한 뒤 심혈관 센터를 지정·설립하게 된다.

광주 국정과제로는 ‘5·18 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추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후 최초 발표명령자, 민간인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도당, 6.15공동선언 참의미 실천해야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 6월 15일 6.15공동선언 17주년 논평을 내고 “분단 이후 남북 정상 간 첫 합의의 결실인 6.15선언의 참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6.15선언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철저히 무시되고 부정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등이 공동선언 사문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민족화해와 통일의 청사진인 공동선언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의 정착 없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없다며 안보는 강화되,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6.15선언의 참의미는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교류로 평화를 정착시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이어 “햇볕정책 계승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 국회 비준, 개성공단 재가동을 차근차근 실천해 6.15선언의 참 의미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더민주산악회 19일 억불산에서 발대식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지역위원장 신문식) 장흥연락사무소는 지난 19일(토) 억불산 천문과학관 앞에서 1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더민주산악회 발대식과 창립산행을 실시했다.

발대식에는 신문식 위원장과 김문호 연락소장, 채은아 군의원, 김현복 군 변영회장(당 문화예술위 부위원장), 박병동 고문(도당 민생치안특별위원장), 사순문 도당 부위원장, 조재환 도당 기업유치특별위원장, 백광철 조직국장과 김연규 상황실장, 김재승 청

년위원장, 각 읍면 권리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천혜의 환경을 지닌 억불산에서 산악회 발대식을 갖게 돼 대단히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며 “오늘을 계기로 더욱 결속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하자. 특별히 수고한 여성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산악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안민석 의원 ‘끝나지 않은 전쟁’ 목포 북 토크쇼 개최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



북 토크쇼 6월 5일, 목포과학대 연구관 7층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은 ‘끝나지 않은 전쟁_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 북 토크쇼를 지난 6월 5일(월) 오후 7시 목포과학대 연구관 7층에서 개최했다.

시민의 힘으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물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안 의원의 북 토크쇼는 지난 5월 31일 울산, 6월 1일 부산에 이어 열렸으며 9일에는 대구에서 개최됐다.

안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최순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약 천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

력을 추적해왔다. 안의원이 쓴 책 ‘끝나지 않은 전쟁_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에는 안 의원이 처음 제보를 받아 의혹 제기를 했던 순간부터, 최순실의 재산을 쫓는 현재까지 그간의 이야기를 소상히 담고 있다.

토크쇼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 목포지역 위 김중현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세월호가 죽합의회 등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약 90분간 열린 토크쇼는 그 동안의 추적기를 담은 이야기에 이어 관객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 중인 모바일랩의 이요민 대표가 특별게스트로 참석, 세월호 선체 조사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더불어민주당**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습니다.**

당원논단

다시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생각한다



이승훈
(도당 정책실장·정치학 박사)

일전에 영암 삼호읍을 지나는데 고등학교 건물에 신언서판이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마 그 학교의 교훈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신언서판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 시대에 관리를 선출하는 네 가지 기준이었으며 조선시대에서는 인물 판별 방법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요즘으로 풀이하면 신(身)이란 건 강한 신체, 언(言)은 조리있고 품위있

는 언변, 서(書)는 글을 쓸 줄 아는 능력, 그리고 판(判)은 사회적 평판을 일컫는 이야기 일 것이다.

비록 근래에 생겨난 말은 아니지만 이 네 글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선출직에 도전하려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지만 특히 언과 판은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지역) 현안을 조정하고 국민(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정치의 본래적 사명이자 역할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면면을 유심히 살피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의 대표를 선택하는가?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후보자의 일관된 언행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노력, 그리고

품성과 사회적 평판이 매우 중요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칭찬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는 소문이 더디지만 과거의 악행이나 비도덕적 행위 등의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나간다.

특히 지도층 인사의 발언은 절대로 즉흥적이어서는 안되며 심사숙고를 통해삼사일언(三思一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야당 국회의원이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돼”라는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그의 발언을 비난하는 집회가 도당 1층에서 열리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분노에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게첨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담보해야 할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

정제되지 않는 발언으로 상처를 준 그는 자숙은 고사하고 계속 설화에 휩싸여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 고위층 인사에서는 나쁜 사회적 평판이 낙마를 초래하기도 한다. 장관 후보 뿐 아니라 실무요원의 낙마까지도 이어져서 일면 놀랍기도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평판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투명거울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많은 이들이 큰 뜻을 품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출전하지만 정작 성공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얻어 선출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자기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몸은 더욱 낮추고 언행은 겸손하게 하면서 경청에 집중하고 중요한 일들은 꼭 메모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두텁게 쌓아야 한다. 그러한 행위들이 몸에 자연스럽게 밸 때 사회적 신망과 평판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평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환영'

5.18 왜곡세력 끝까지 추적, 단죄의 계기로 삼아야

‘광주학살의 수괴’ 전두환의 회고록을 통한 역사왜곡에 대해 5·18단체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6월 12일 오전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전남도당은 회고록 내용의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을 통해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 금지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하며, 시·도민과 함께 전씨의 5·18 역사왜곡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양민에 대한 의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발표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을 ‘씻김극의 제물’로 표현하며 “나에게 가해진 모든 악담과 저주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다”고 강변했다.

5월단체들은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 부정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시민을 향한 발포 부정 ▲전두환의 5·18 관여 부인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전씨는 이미 지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다. 따라서 그가 대법원 판결과 5.18특별법이 규정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데다 제대로 된 역사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남도당은 발표명령자, 헬기난사 등의 학살행위 주동자 등에 대한 미완의 진실규명과 함께 5·18 왜곡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를 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17. 6. 1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논평

6.15 공동선언 17주년, 남북 공동선언의 참 의미를 실천해야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결실인 6.15공동선언이 체결된 지 17주년이 됐다. 6.15공동선언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물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6.15공동선언은 철저히 무시되고 부정당해 왔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동이 공동선언을 사문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족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인 공동선언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6.15공동선언의 참 의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

시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자주적 통일을 이루는데 있다.

대화와 협력 없이는 평화의 정착과 통일도 없다. 평화의 정착 없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없다. 안보는 강화하되,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유일하게 햇볕정책 계승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 국회 비준, 개성공단 재가동을 차근차근 실천해 6.15선언의 참 의미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6. 1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민건강과 더불어민주당

16.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秘話

노무현 대선후보 확정에 청와대 ‘막후 개입說’ 분분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대선 유세를 마치고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고려대 현대정치연구회 제공)



김대중(사진 우)과 노무현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다만 한 잎 차에 띄워 마시며 살겠다.”

박지원(75)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3년 6월 18일 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조지훈 선생의 시 ‘낙화’를 인용해 밝힌 회고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소통령’ 또는 ‘대(代)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가 청와대에서 나온 지 4개월 만에 영어의 몸이 되는 순간 남긴 이 말에는 어떤 생각이 녹아 있었을까.

‘낙화론’은 박지원 전 실장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 박 전 실장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심경이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 했던 것 같다. 그는 평소 매우 신중히 생각한 뒤에야 말을 꺼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화제를 모은 이 시구 또한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준비한 끝에 ‘채택’됐다는 후일담도 있다.

박 전 실장은 구속을 예감하면서 뭔가 언론에 남길 적절한 은유적 표현을 별도로 준비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박 전 실장의 한 측근은 여러 시집을 뒤졌는데 그 가운데 조지훈의 시 ‘낙화’를 찾아내 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것. 박 전 실장은 시 문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먼저 ‘꽃’은 박 전 실장 본인이거나 좌초위기에 처했던 햇볕정책, 또는 당시 위기에 몰렸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의 정부 사람들을 비유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했다. 아울러 무상한 권력 자체를 ‘만개했다 지는 꽃’으로 묘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바람’은 무엇이였을까. 일단 햇볕정책에

관여했던 국민의 정부 사람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당시의 정치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측에서는 ‘바람’이 당시 참여정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즉, 참여정부 탄생에 국민의 정부 청와대가 음모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결국 국민바람이 돼 꽃을 지게 하는 데 대한 비정함을 탄식하고, 그렇지만 이를 탓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다.

현대 측이 대북송금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줬다는 150억원의 용처 문제, 여권 유입설 등은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측은 150억원에 대해선 몇몇하다는 입장이다. 2002년 3~4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음모론’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노무현 후보가 예상을 완전히 깨고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는 데는 청와대의 막후 지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그때의 관측과 당시의상황을 연결시켜 ‘낙화론’을 해석할 수 있는 까닭이다.

“ ‘김심’ 읽은 박실장이 盧 밀었다”

참여정부 탄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 과정에서 ‘김심’을 읽은 박지원씨가 노 후보를 막후 지원한 것은 정황상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그는 “경선 이후 노 후보의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청와대가 나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 흔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저도 ‘바람’을 탓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과 이인제 후보 등이 제기한 것처럼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작업’이 있었을까.

또 이후 지지도가 떨어진 노 후보 낙마를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지금까지 분명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먼저 당시 청와대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개입 여부를 규명해보기 위해 민주당 경선이 막 끝났을 때인 2002년 5월 박지원 실장과 일부 기자들이 북한산 자락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나눈 대화를 들어보자. 박 실장은 민주당 경선 막바지인 4월 15일 청와대 정책특보에서 비서실장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청와대가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한데요.”

“대통령께서 전혀 정치에 간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는데 무슨...”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박 실장과 동교동이 막후 지원에 나섰다...”

“ ‘정치 똑, 경제 GO’,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청와대의 지원 없이 특히 광주에서 갑자기 그런 바람이 불 수 있었겠습니까.”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데 대한 원인 분석은 했을 것 아닙니까. 정무수석실도 여전히 있고...”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후보에 대해 갖고 있

는 생각이 있을 텐데요.”

“ (몇 번 망설이다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배신 같은 것은 할 사람도 아니고...”

당시 기자들은 박실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다는 간접적인 암시라도 듣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가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박실장은 “대통령께서 정치와 절연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 살리기 밖에 없다”는 말로 기자들의 예봉을 교묘히 피해나갔다. 사실 박실장이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은 그 자리에서뿐만은 아니었다.

야당 대변인을 오래 한 까닭인지 기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그런 민감한 질문이 나올 줄 알면서도 기자들과 자주 자리를 같이했다. 그때마다 박실장이 설파한 것은 ‘후계자 불요론’ 더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후계자를 정하면 오히려 그로부터 화를 당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박실장의 말은 이랬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후계자를 정해 정권을 물려준 사람들의 말로를 보라. 잘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전두환은 천신만고 끝에 노태우에게 권좌를 넘겼지만 노태우에 의해 백담사로 쫓겨갔다. 노태우는 민정계의 거센 반대를 뿌리치고 YS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서도 YS 집권 때 감옥에 가지 않았느냐. YS도 사실상 이회창을 지지했는데, 만일 이회창이 됐으면 그도 화를 당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큰소리 치고 살지 않느냐.”

북한산 모임에서도 박실장은 이런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의미심장했다. ‘(노무현)는 믿을 만한 사람’이란 표현이었다.

여기서 박실장이 ‘후계자 불요론’을 주장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후계자로 점지해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당선시켜줬지만 결국 그 후계자에게 배신당했음을 강조한 부분이 주목대상이다. 역(逆)으로 해석하면 ‘배신하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퇴임 후가 편안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DJ의 복심에 따라 박실장이 ‘믿을 만한 사람’ 노무현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밀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었다.

전남도당 7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당비·보조금 외 지원금 등 3억7,461만6,767원
지출, 기본경비·정치활동비 등 7,725만6,613원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의 지난 7월말 현재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1,216만1,306원과 당비 수입 2,838만5천원, 상급당부 지원금 3,099만9,481원 등 모두 3억 7,461만6,767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당은 이 가운데 조직활동비 2,560만1,533원, 정책개발비 165만7,200원, 그 밖의 경비 102만3,80원 등 모두 7,725만6,61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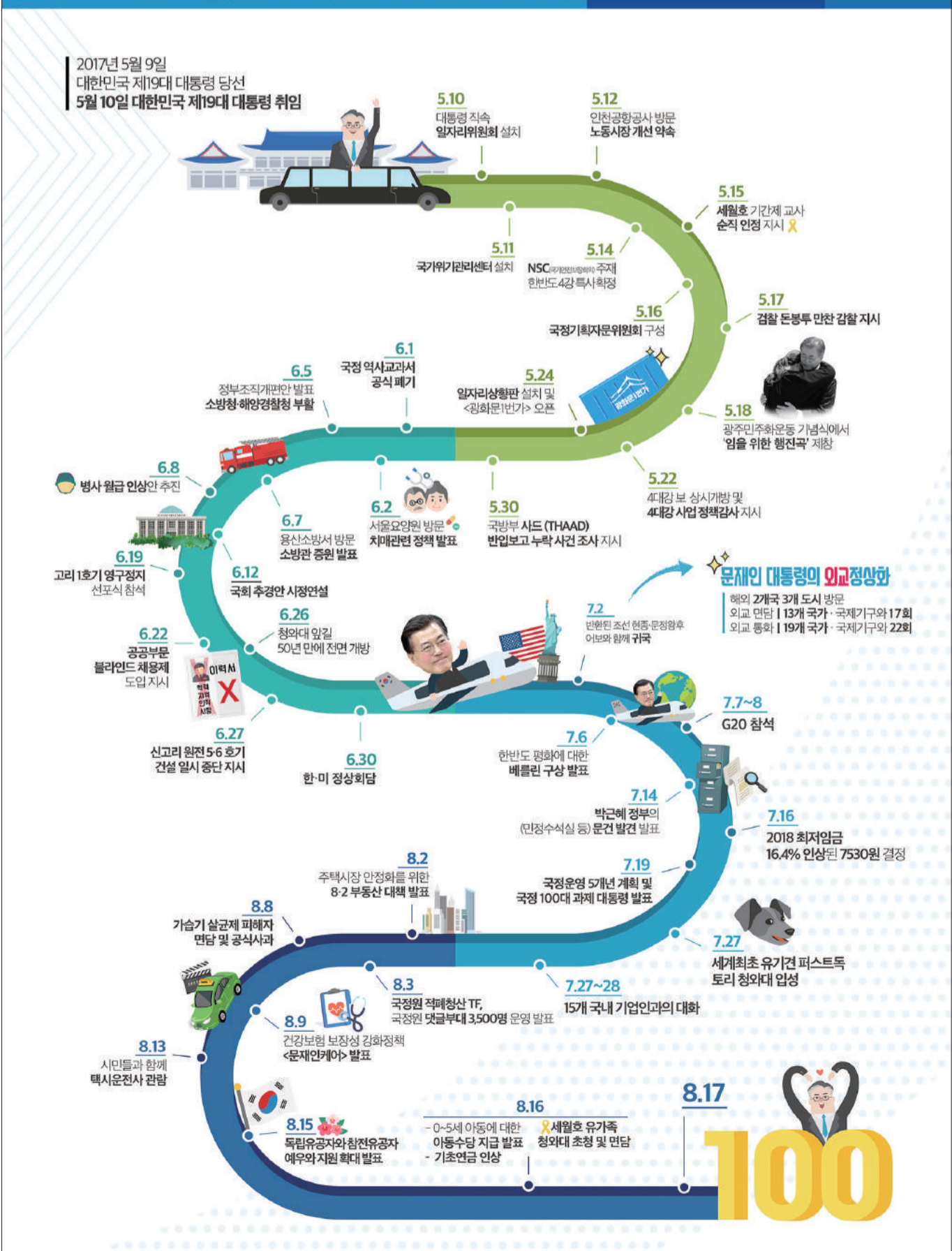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현재 지출 잔액은 2억9,736만 154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 간의 기록

8월 17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담았습니다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7.07.01~2017.07.31)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년도이월	312,161,306	311,573,701	587,605	
	당비	28,385,000	28,385,000	0	
	기탁금(중앙당에한함)	0	0	0	
	후원회기부금	0	0	0	
	보조금(중앙당에한함)	0	0	0	
	차입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30,999,481	30,999,481
하급당부			0	0	
소계	30,999,481	30,999,481	0		
그밖의수입	3,070,980	3,070,980	0		
합계	374,616,767	374,029,162	0		
지출	선거비용	0	0	0	
	기본경비	인건비	40,255,880	40,255,880	
		사무소설치운영비	8,718,020	8,718,020	
		정책개발비	1,657,200	1,657,200	
		조직활동비	25,601,533	25,601,533	
	정치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0	0	
		그밖의경비	1,023,980	1,023,980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소계	0	0			
합계	77,256,613	77,256,613	0		
잔액	297,360,154	296,772,549	587,605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권리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김현진 차장 ☎ 061)287-1219

최저임금 올리고 게 아닙니다

모두가 웃는 2018 최저임금 인상안

- 서민층 소득확대의 첫 단추**
최저임금 1572만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대비 월 221,540원의 소득 증가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63만명 서민층 소득확대를 통해 실제 소득향상을 도모
- 사장님, 걱정하지마세요!**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이 뒤따릅니다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0.8% 인하범위 확대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
임차인 보호방위 90%로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장기 안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0년까지 연장
-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불능력이 있는 값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감당하도록 임법적 수단 강구
최저임금이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감시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비전 실현

더불어민주당

금동관 칠 100th 주년

제3회 마한문화축제가

2017 09.22. ▶ 09.24.
국립나주박물관 일원



주최 : NAJU 나주시 주관 : 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